

開寶藏에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

Scriptures of Jangso and Jibjeonryu Additionally Included in
Tripitaka Kai bao

유 부 현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緒言 | 3. 開寶藏의 構成과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 |
| 2. 趙城藏에 수록된 開寶藏 續刊 章疏와 集傳類 경전 | 4. 結言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趙城藏에 수록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을 분석하여, 개보장에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보장의 續刊으로서 追加 入藏된 章疏·集傳類 경전은 총 102帙(78種 928卷)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종류로 분석되었다. 하나, 해당 경전이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章疏·集傳類 ①” 10질(1종 100권), 둘, 해당 경전이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고 재조장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章疏·集傳類 ②” 65질(58종 610권), 셋, 해당 경전이 刊行·入藏 기록은 있으나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은 “章疏·集傳類 ③” 12질(13종 118권), 넷,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어 개보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入藏·刊行 記錄未詳인 “章疏·集傳類 ④” 12질(4종 67권), 다섯, 續刊元錄藏에 포함되어 있는 “章疏·集傳類 ⑤” 3질(2종 33권) 등으로 분석되었다.

要語: 開寶藏, 趙城藏, 章疏, 集傳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4년 9월 12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is what considers scriptures of jangso and jibjeonryu additionally included in *Tripitaka Kai bao*, analyzing them in *Josungjang*.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Scriptures of jangso and jibjeonryu which are held supplementally as sokgan of *Tripitaka Kai bao* were studied total 102 sets (79 sorts 928 volumes). And they were analyzed five kinds as follows. One, jangso · jibjeonryu that relevant scriptures are all added in *Josungjang* and *Jaejojang*, ① 10 sets (1 sort 100 volumes), two, jangso · jibjeonryu which they are not in *Jaejojang* but in *Josungjang*, ② 65 sets (58 sorts 610 volumes), three, jangso · jibjeonryu that they have published record, but are not in *Josungjang* and *Jaejojang*, ③ 12 sets (13 sorts 118 volumes), four, jangso · jibjeonryu that they certainly are *Tripitaka Kai bao* for reason of being included in *Josungjang*, but they don't have published record, ④ 12 sets (4 sorts 67 volumes), five, jangso · jibjeonryu that they are in *Sokgaewonrokjang*, ⑤ 3 sets (2 sorts 33 volumes) etc.

Key words: *Tripitaka Kai bao*(開寶藏), *Josungjang*, jangso, jibjeon

1. 緒 言

開寶藏은 北宋에서 開寶 4년(971)에 雕造되기 시작하여 太平興國 8년(971)에 완성된 13萬餘板의 5040餘卷 480帙에 해당되는 本藏과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된 續刊을 포함한 北宋官版大藏經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개보 4년(971)에 勅命으로 雕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開寶勅版大藏經”·“開寶藏” 등으로 부른다. 또한 옛 蜀나라 지역인 益州(지금 四川의 成都)에서 조조되었기 때문에 “蜀本大藏經”으로 말하기도 한다.

開寶藏의 刊本은 거의 인멸되어 현존본은 겨우 10 餘種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개보장이 어떻게 편성되어 그 구성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개보장의 개략적인 구성만이 北宋末期의 禪師인 惟白의 언급¹⁾을 통해서 파악될 뿐이다. 즉 惟白의 글에서 崇寧 4년(1106)에 통행되고 있던 개보장은 개보장의 本體인 “五千四十餘卷 四百八十帙”의 本藏과 續刊이라 할 수 있는 “經傳三十帙 未入藏經²⁾二十七帙”을 더해 537帙로 구성되었음이 파악된다.³⁾ 이 가운데 속간의 경전들은 咸平 元年(998) 雲勝의 요청으로 인해 咸平初年(998~?)에 大藏에 編入된 것이다.⁴⁾ 그리고 이 속간된 경전들은 趙城藏⁵⁾에

1) 惟白의 언급이란 것은 惟白禪師가 崇寧 4년(1106)에 저술한 『大藏綱目指要錄』 卷第八의 내용 가운데 ‘英’帙의 “尼傳”까지의 綱目을 기록한 곳에 註記해 놓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右聖賢傳記 有譯本者六十八部計一百七十三卷共五十帙 天竺法師所述也 無譯本者四十部計三百六十八卷共四十三帙 華夏高人所撰集也 若通前計大小乘經律論 總五千四十餘卷 四百八十帙 以開元釋教錄爲准 則今撮略品目所集也 其餘隨藏添賜經傳三十帙 未入藏經二十七帙 天下寺院藏中 或有或無 印經官印板却足故 未錄略在 知者可鑒耳”{中華書局 編, 『中華大藏經』 56책(1984), 245}.

2) “未入藏”이란 말은 “아직 大藏의 編成에 들어가지 않았다”의 의미이고 ‘大藏’이란 것은 開元錄藏經 480帙의 千字文號부터 英字號에 이르는 편성이다{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別卷(東京: 大同出版社, 1936), 680}.

3)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別卷(東京: 大同出版社, 1936), 680.

4)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大乘文化出版社, 1977), 201 및 203.

5) 趙城藏은 1149년(皇統 9, 南宋의 紹興 19)에 雕造를 시작하여 1173년(大定 13, 南宋의 乾道 9)에 완성된 것이다. 이 대장경은 開寶藏의 覆刻本인데, 裝訂은 卷軸裝이며, 每版 23行, 每行 14字로서 開寶藏의 기본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趙城藏에 수록된 경전은 거의 7,000餘卷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380여 권이다. 이 趙城藏은 현재 4種의 印本이

수록되어 있다.⁶⁾

續刊된 경전 가운데 “經傳 30帙”은 현존 趙城藏과 高麗藏의 “杜”부터 “殼”帙까지에서 확인되는데, 이 “杜”부터 “殼”帙까지의 北宋新譯經이 바로 惟白이 말한 “經傳 30帙”이다. 한편 “未入藏經 27帙”은 咸平 初年(998~?)에 개보장에 編入된 이후 天聖 5년(1027) 惟淨이 天聖釋教總錄을 편찬하면서 27帙⁷⁾로 編帙된 것인데⁸⁾, 현존 趙城藏의 “祿”부터 “奄”帙까지의 宋以前翻譯經論 24帙⁹⁾과 “振·纓·世”(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과 正元續開元錄 3卷)의 3帙을 더한 27帙이 바로 “未入藏經 27帙”인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기술한 咸平 初年(998~?)의 續刊 이후의 또 다른 追加의인 속간은 없었는가? 현재 이에 관한 직접적인 史料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속간에 대한 분명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¹⁰⁾ 단지 趙城藏과 高麗藏 그리고 入藏 記錄에 의거해서 追加의인 續刊의 구성과 규모를 대략적으로 고찰한 연구¹¹⁾가 있을 뿐이다.

남아 있으며 『中華大藏經』에 그 주된 底本으로서 影印·수록되어 있다. 이 4종의 인본은 즉 山西省 趙城縣 廣勝寺에서 발견된 廣勝寺本 4,827권, 원래 燕京의 大寶集寺에 收藏되어 있다가 西藏의 薩迦北寺에서 발견된 大寶集寺本 540권, 그리고 廣勝寺本에 섞여 있는 興國院本과 天寧寺本 등인데 모두 天寧寺에서 初雕된 인본이다. 이러한 趙城藏이 開寶藏의 복각본이라는 사실은 이미 일찍부터 학계의 통설이다.

- 6) 李富華, “『趙城金藏』研究,” 『中日佛教學術會議論文集(1985~1995)』(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7), 301. (『趙城金藏』研究는 1991년 10월 中日第4次佛教學術會議에서 발표된 논문임).
- 7) “右準貞元續開元釋教錄四朝翻譯經論及念誦法讚錄等 計一百二十五部二百四十二卷二十四帙 并廣品歷章三十卷本錄三卷勒成三帙 附正元錄之首 已上總二百七十五卷二十七帙”(『天聖釋教總錄』下冊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2쪽, 938)).
- 8)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203.
- 9) 이 24帙은 이른바 貞元錄經으로 雲勝이 언급한 “開元年智昇撰錄後來唐玄奘代德四朝七人三藏所續”이기도 한 것이다(『寶林傳』卷第二 末尾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쪽, 617)).
- 10) 이 점에 있어서는 李富華의 다음과 같은 論及이 주목된다. “현존 金藏 가운데 ‘大宋咸平元年(998)奉勅雕造’, ‘紹聖二年(1095)雕造’ 및 大宋景德元年(1004), 天聖三年(1025), 六年, 九年 등의 原雕經題記와 譯經·進經題款이 남아 있다. 이것은 개보장의 續刻이 宋哲宗年間까지 持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100여 년간의 續刻 내용 또한 金藏에 反映되어 있는 것이다”(李富華, “『趙城金藏』研究,” 『中日佛教學術會議論文集(1985~1995)』(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7), 301).
- 11)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40.

한편 개보장의 續刊된 경전은 北宋 이전에 한역된 경전(이른바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및 “開元錄 이후 玄宗, 肅宗, 太宗, 德宗 등 4朝에서 漢譯된 경전”)과 북송때 처음 한역된 경전(이른바 “宋新譯經”)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章疏와 集傳類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 개보장의 속간으로서 北宋 이전에 한역된 경전과 북송때 처음 한역된 경전은 그 규모와 전모가 개보장의 복각본인 趙城藏과 개보장의 수정 복각본인 高麗藏(初雕藏·再雕藏)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악된다. 그러나 개보장 속간으로서의 章疏와 集傳類 경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대장경의 正藏에 해당되는 經律論의 한역경전은 인도에서 저술된 이후 중국에서 한역된 것이다. 반면 대장경의 續藏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章疏와 集傳類 경전은 주로 동양에서 學文僧에 의하여 한문으로 저술된 것이다. 개보장 속간으로서 開寶藏에 追加 入藏된 장소와 집전류 경전은 이러한 대장경 續藏 중의 일부로서 중국을 비롯한 東洋의 佛教學을 이해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개보장의 구성 그리고 조성장의 현존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趙城藏에 수록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을 분석해 보고, 개보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開寶藏에 추가 입장된 장소와 집전류 경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開寶藏에 추가 입장된 장소와 집전류 경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동양 학문승의 불교학뿐만 아니라 대장경의 續藏과 고려의 教藏總錄을 이해하는 데에도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趙城藏에 수록된 開寶藏 續刊 章疏와 集傳類 경전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바탕적인 근거가 되는 趙城藏에 수록된 章

疏와 集傳類 경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성장에는 90帙 65種 810卷의 章疏와 集傳類 경전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권이 振(511)~世(513)帙에 수록되어 있다.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 3帙은 唐代 玄逸이 편찬한 것으로 開元錄의 入藏錄 편차에 따라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의 概要와 品次를 기재하고 敍說을 붙인 저술이다. 이 廣品歷章은 崇寧 4년(1105) 惟白이 말한 “未入藏 27帙” 가운데 3帙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래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咸平(998~1003) 初년에 開寶藏에 編入된 것이다.

2) 續開元錄 3권이 世(513)帙에 수록되어 있다. 續開元錄 3卷은 續開元錄, 貞元錄, 續貞元錄에 입장되어 있다. 조성장의 속개원록 3권은 속개원록 경전으로서 이른바 개보장의 “未入藏 27帙”의 일부이기도 하다. 때문에 趙城藏에는 이 續開元錄이 “未入藏 27帙”의 일부로서 廣品歷章과 함께 世(513)함에 수록되어 있다.¹²⁾ 趙城藏本 續開元錄에 있어서 卷上, 卷中 등의 卷首 帙號가 “世移在祿”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移在祿” 3字는 加筆된 것이다.

3) 大方廣佛華嚴經合論 120권이 踐(581)~刑(592)帙에 수록되어 있다. 大方廣

12) ① 한편, 再雕藏 즉 初雕藏에서는 이 續開元錄 3卷이 續開元錄藏의 일부로서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續貞元錄藏의 일부로서 수록되어 있다. 再雕藏本과 趙城藏本은 동일 계통의 판본이 아니다. 아마도 고려 顯宗朝에는 續開元錄藏에 수록된 續開元錄 3卷이 初雕藏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文宗朝에 續貞元錄藏 경전이 初雕藏에 新編入錄될 때, 初雕藏에 원래 수록되어 있던 續開元錄藏 續開元錄 3卷은 續貞元錄藏 續開元錄 3卷으로 대체 수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② 이 續開元錄(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 3卷)은 唐代 圓照가 德宗 貞元 11년(795)에 편찬한 목록이다. 본 목록의 입장록에는 開元 18년(730)부터 德宗 貞元 10년(794)까지 漢譯된 經論 및 念誦法 193卷, 經論疏義 64卷, 貞元新集古今制令碑表記 86卷 도합 343卷에 본 목록 2卷을 더해서 총 345卷이 입장되어 있다. 참고로 본 목록에 수록된 경전은 대체로 密教 경전들이다. 본 목록은 貞元 11년(795)에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본(趙城藏, 房山石經, 再雕藏에 수록된 續開元錄)은 貞元 16년(800) 貞元新定釋教目錄이 편찬된 즈음에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및 開元錄 이후에 漢譯된 경전으로서 貞元新定釋教目錄에 처음으로 입장된 경전들도 追記되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教藏總錄에도 續開元錄이 기재되어 있는데 著者名이 “詮曉集(舊名詮明)”으로 되어 있다.

佛華嚴經合論 120卷은 大中年中(847~859)에 開元寺의 僧 志寧이 新譯華嚴經과 李通玄의 新華嚴經論을 합하여 완성한 것인데, 宋 乾德 5년(967)에 慧研이 帝旨를 받들어 漏略된 것을 보완 정리하여 다시 開印한 것이다(佛光大辭典, p.5469).

4) 法苑珠林 100권이 起(593)~威(602)帙에 수록되어 있다. 法苑珠林 100卷은 唐 道世(?~683)의 찬술로서 唐 高宗 總章 원년(668)에 완성되었다. 經·律·論을 위시하여 外典에 이르는 수백 종의 광범위한 자료를 유별로 기술한 것이다. 이 경전은 원래 咸平(998~1003) 初년에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編入된 것이다.

5) 傳燈玉英集이 沙(603)~漠(604)질에 수록되어 있다. 傳燈玉英集 15卷은 宋代 惟淨·法護 등의 찬술로서 梵字를 분류하고 그 音義를 解明한 것이다. 원래 景祐 2년(1035) 9월에 勅版된 것이다(佛光大辭典, p.1351).

6) 天竺字源이 馳(605)帙에 수록되어 있다. 天竺字源 7책은 宋代 王隨의 撰述로서 景德傳燈錄을 刪定한 拔抄本이다. 원래 景祐 원년(1034)에 편성되어 同年에 印經院에서 開版된 것이다(佛光大辭典, p.5393).

7) 天聖釋教總錄이 響(606)帙에 수록되어 있다. 天聖釋教總錄 3권은 天聖 5年(1027)에 惟淨이 편찬하여 진상한 목록서이다. 이 책의 下冊의 末張인 제56장의 版心 下段에만 千字文 帙號인 ‘響’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墨等(‘■’)으로 되어 있거나(下卷 제7, 13, 26, 27, 38, 39장의 版心 下端의 下部),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天聖釋教總錄의 판식은 方冊本의 판식으로서 景祐 2년(1035) 9월에 勅版된 傳燈玉英集과 매우 유사한 모양이다. 天聖釋教總錄의 조성장본은 方冊本으로서 상권은 결실되었고, 중권과 하권이 남아 있다. 이 책에는 하권의 권말 版心 下端의 上部에만 유일하게 천자문 질호 ‘響’가 기재되어 있다.¹³⁾

8) 圓覺道場修證儀이 丹(607)~靑(608)帙에 수록되어 있다. 圓覺道場修證儀

13) 方廣鋳은 天聖釋教總錄 조성장본은 조성장이 간행될 때, 坊刻本(私刊本)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되어 조성장에 수록된 것이며, 이 때 천자문 질호 ‘響’가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방광창은 조성장본 天聖釋教總錄의 판본의 체제가 전형적인 개보장과 상이한 점에 근거하여 그 저본이 坊刻本(私刊本)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방광창의 이와 같은 이해는 필자와 선생과의 토론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18卷은 唐代 宗密(780~841)의 撰述로서 禮懺 禪觀 등의 修行儀則을 기재한 것이다(佛光大辭典, p.5419). 참고로 중국국가도서관에는 宗密이 撰述한 것으로서 私刻本인 圓覺經略疏之鈔의 殘本 제4, 6, 8, 11¹⁴⁾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 圓覺經略疏之鈔에는 천자문 길호는 없으나 제8권의 경우 卷首에 釋迦說法圖가 들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중화대장경』 92책, p.197).

9) 天聖廣燈錄이 九(609)~禹(611)에 수록되어 있다. 天聖廣燈錄 31卷은 宋代 鎮國軍節度使 李遵勗(?~1038)의 撰述로서 高宗 紹興 18년(1148)에 간행되었다. 원래 天聖 7년(1029)에 李遵勗이 仁宗에게 廣燈錄을 받치니 仁宗이 “天聖” 두 글자를 하사한 것이다. 본서는 景德傳燈錄을 계승한 것이다(佛光大辭典, p.1363).

10) 祥符錄이 후술할 景祐錄과 함께 跡(612)~群(614)帙에 수록되어 있다. 祥符錄 22卷은 北宋의 趙安仁, 楊億, 惟淨 등이 大中祥符 6년(1013)에 편찬한 목록이다. 趙城藏은 제1, 2, 5, 9, 19, 21, 22권 등이 缺失되었고, 제6, 10권 2卷은 殘缺된 상태이다. 본 목록에는 北太平興國 7년(982)부터 大中祥符 4년(1011)까지 新譯된 경전 및 宋 太宗의 御製 등 22부 413권이 기재되어 있다.

11) 景祐錄이 前述한 祥符錄과 함께 跡(612)~群(614)帙에 수록되어 있다. 景祐錄 21卷은 北宋의 呂夷簡 등이 景祐 4년(1037)에 편찬한 목록이다. 趙城藏 본은 中·下 2책으로서 上책이 결실된 殘缺本이다. 이 목록에는 大中祥符 5년(1012) 이후 景祐 4년(1037)까지 韓譯된 경전 19部 150권이 기재되었다.

12) 曹溪寶林傳이 秦(615)帙에 수록되어 있다. 曹溪寶林傳은 총 10卷인데 제6, 7, 9, 10권 등 4卷이 결실되어 현존하는 것은 모두 6卷이다. 唐代 智炬(혹은 慧炬)가 貞元 17년(801)에 禪宗史에 유관한 저서를 집록하여 찬술한 것이다(佛光大辭典, p.6747). 이 寶林傳은 원래 咸平(998~1003) 初년에 大藏에 편입된 경전이다.¹⁵⁾

13) 景德傳燈錄이 禪(621)~云(623)帙에 수록되어 있다. 景德傳燈錄 30卷은 宋

14) 제11권은 2種이 존재한다.

15) 『寶林傳』 卷第二 末尾 (中華書局編, 『중화대장경』 73책, 617). “咸平元年上表 乞續編入開元年智昇撰錄後來唐玄奘代德四朝七人三藏所翻 并聖朝四人翻譯 并聖製三藏集傳一千餘卷 今取聖旨 集補之.”

代 道原의 撰述로서 중국 禪宗史書의 하나이다. 본서는 過去七佛부터 역대 선종의 諸祖 5家 52世 총 1,701명의 傳燈法系를 집록한 것이다. 원래 眞宗 元年(1004)에 奉勅入藏된 것이다(佛光大辭典, p.5008).

14) 澄觀撰著類의 경전이 鷄(629)~洞(639)질에 수록되어 있다. 澄觀撰著類는 3種 120卷으로서 華嚴經清涼疏 40권, 華嚴經清涼疏科 20권¹⁶⁾, 華嚴經隨疏演義鈔 60권 등이다. ① 華嚴經清涼疏의 趙城藏本은 40권 가운데 총16권(제12~18, 20, 22, 31~35, 37, 38권)이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② 華嚴經清涼疏科의 趙城藏本은 남아 있는 현존본이 없다. 한편 嘉泰元年(1201) 전후에 開寶藏本을 飜刻한 重刊本 7권(제3~6, 9, 11, 17권)이 日本 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다.¹⁷⁾ ③ 華嚴經隨疏演義鈔의 趙城藏本은 60권 가운데 24권(제1, 3~9, 21, 24, 25, 27, 29, 30, 32~38권, 이 중 제32, 34, 38권은 複本임)이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5)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가 庭(640)帙에 수록되어 있다.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 6卷은 唐代 靑龍寺 沙門 道氤이 玄宗의 詔書를 받들어 지은 金剛經의 注疏이다(佛光大辭典, p.3705).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의 趙城藏本은 6권 가운데

16) 蔣唯心の “金藏雕印始末考”에는 華嚴經清涼疏科가 10卷本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至元錄에는 華嚴經清涼疏科의 卷數가 10권으로 기재되어 있다(大元至元法寶勘同總錄 第10卷: 『中華大藏經』 56冊, 112).

17) ① 靜嘉堂文庫所藏 華嚴經清涼疏科의 제5권 卷末에는 다음과 같은 題記가 기재되어 있다. “文藻續刊科文謹將亡徒弟契中屠黎法孫德容屠 … 崑嘉泰改元(1201)結夏前一日 文藻謹題.”

② 靜嘉堂文庫所藏 華嚴經清涼疏科의 제4, 5, 6권 등의 卷末에는 다음과 같은 開寶藏의 印經牌記가 “熙寧辛亥歲(1071)仲鞞初十日 中書筭子奉聖旨賜大藏經版于顯聖寺聖壽禪院印造 提轄管勾印經院事左街僧叅管勾教門公事妙善淨覺慧慈大師 善因”이 들어 있다. 그리고 제9권 卷末題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第六廻向竟 經盡二十八卷 疏盡十九卷 第二十六紙,” 제11권 卷末題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二地竟 經至卅五卷上半 疏卅四卷終,” 제17권 卷末題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疏盡三十七卷 十二紙”에 의거해 보면, 이 開寶藏飜刻本 華嚴經清涼疏科는 20卷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靜嘉堂文庫所藏 華嚴經清涼疏科는 開寶藏의 印經牌記가 있고, 그 卷數가 20권본인 것으로 보아 개보장에 入藏된 華嚴經清涼疏科는 20卷本이고, 또한 조성장에 수록되었을 華嚴經清涼疏科도 20卷本일 것으로 추정된다(靜嘉堂文庫編, 『靜嘉堂文庫宋元版圖錄』 (汲古書院, 1992), 53 참조).

데 제5권 1권만이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6) 天台章疏類의 경전이 岷(646)~畝(660)帙에 수록되어 있다. 이 天台章疏類의 경전은 원래 후술할 我(661)~勸(669)帙의 法相論疏類의 경전과 함께 宋仁宗 天聖 4년(1026)에 勅命으로 “編聯入藏”된 것이다.¹⁸⁾ 총15帙 29種 148卷으로서¹⁹⁾ 法華經玄義 10권²⁰⁾, 法華經玄義釋籤 10권²¹⁾, 法華經文句 10권²²⁾, 法華經文句記 10권²³⁾, 摩訶止觀 10권²⁴⁾, 止觀輔行傳弘決 15권²⁵⁾, 涅槃經疏 18권²⁶⁾, 涅槃經玄義 2권, 金光明經文句 3권²⁷⁾, 金光明經玄義 1권²⁸⁾, 觀音經玄義 2권²⁹⁾, 觀無量壽佛經疏 1권³⁰⁾, 四教義 4권, 四念處 4권³¹⁾, 觀心論疏 3권³²⁾, 菩薩戒義疏 2권³³⁾, 止觀大意 1권, 觀心論 1권, 金剛錍 1권³⁴⁾, 國清道場百錄 5권³⁵⁾, 法界

-
- 18) 李富華, “『趙城金藏』研究,” 『中日佛教學術會議論文集(1985~1995)』(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7), 301. 및 “天聖四年 … 夏四月 … 內出天台智者科教經論一百五十卷 令三藏惟淨集左右街僧職京城義學文學沙門二十人 同加詳定編錄入藏 詔杭州搜訪印版 並令附譯以進 有關者付印經院刊鏤 五月 復出唐慈恩寺翻經法師窺基所著經論章疏四十三卷 令編聯入藏 惟淨等請以智者慈恩二書附於開元錄東土集傳之次”(『景祐錄』 第17卷 第6, 7張; 『中華大藏經』 73冊, 579) 참조.
- 19) 蔣唯心, “金藏雕印始末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266-268 참조.
- 20) 法華經玄義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2, 7, 8권이다.
- 21) 法華經玄義釋籤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9권이다.
- 22) 法華經文句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2, 3, 5권이다.
- 23) 法華經文句記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1, 3, 4, 5, 7, 8, 9권이다.
- 24) 摩訶止觀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3, 4, 5, 6, 9권이다.
- 25) 止觀輔行傳弘決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1, 2, 4~9, 13, 14권이다.
- 26) 涅槃經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2, 6~10, 12~15, 17권이다.
- 27) 金光明經文句의 趙城藏 傳存本은 上卷, 下卷이다.
- 28) 金光明經玄義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4장~제36장이다.
- 29) 觀音經玄義의 趙城藏 傳存本은 上卷이다.
- 30) 觀無量壽佛經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없지만, 至元錄에는 觀音經玄義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中華大藏經』 56책, 113의 中段).
- 31) 四念處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3, 4권이다.
- 32) 觀心論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下卷이다.
- 33) 菩薩戒義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上卷이다.
- 34) 金剛錍의 趙城藏 傳存本은 卷末의 다섯 장이다.
- 35) 國清道場百錄은 第3, 4卷이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國圖排架號: 4781, 4782], [國圖卷號: 4591, 4552]).

次第初門 3권, 止觀義例 1권³⁶⁾, 方等三昧行法 1권, 釋禪度次第法門 10권, 維摩經疏 10권, 維摩經疏記 6권, 觀世音經疏 2권, 法華三昧儀 1권, 六妙門禪法 1권 등이다.

17) 法相論疏類의 경전이 我(661)~勸(669)帙에 수록되어 있다. 이 法相論疏類의 경전은 前述한 天台章疏類의 경전과 함께 宋 仁宗 天聖 4년(1026)에 勅命으로 “編聯入藏”된 것이다. 총9帙 16種 63卷으로서³⁷⁾, 成唯識論述記 10권³⁸⁾, 成唯識論述記科文 2卷³⁹⁾, 成唯識樞要 3권, 上生兜率天經疏 2권⁴⁰⁾, 因明正理論過類疏 1권, 百法明門論決頌 1권(全缺)⁴¹⁾, 大乘瑜伽劫章頌 1권(全缺), 法苑義林 6권⁴²⁾, 百法論疏 2권(全缺), 因明入正理論疏 3권⁴³⁾, 般若心經幽贊疏 2권⁴⁴⁾, 阿彌陀經通贊疏 2권⁴⁵⁾, 異部宗輪論疏 1권(全缺), 彌勒下生成佛經疏 1권(全缺), 法華經玄贊 10권⁴⁶⁾, 瑜伽師地論略纂 16권⁴⁷⁾ 등이다.

36) 止觀義例의 趙城藏 傳存本은 卷의 前半部이다.

37) 蔣唯心, “金藏雕印始末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268-269 참조.

38) 成唯識論述記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1, 2, 4, 7, 9, 10권이다.

39) ① 趙城藏本 成唯識論述記科文 2卷은 卷首가 훼손되어 著者名을 알 수가 없고, 千字文 帙號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成唯識論述記科文 2卷은 趙城藏 廣勝寺本과 같이 趙城 廣勝寺에 보존되고 있던 것이다.

② 『中華大藏經』의 校勘記에는 成唯識論述記科文에 錢자문 跡호가 없기 때문에 成唯識論述記科文이 “金藏原刻本”이 아닌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중화대장경』 99쪽, 389). 方廣錫 교수도 이 成唯識論述記科文 2卷이 大藏經本이 아닌 私刻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③ 『中華大藏經』에 영인되어 있는 成唯識論述記科文 2卷의 卷首에는 釋迦說法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원래의 것이 아니고, 『中華大藏經』에서 새로 추가하여 수록된 것이다.

40) 上生兜率天經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下卷이다.

41) “全缺”이라고 기재된 것은 사실 조성장에 缺失되어 수록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至元錄과 “金藏雕印始末考”{蔣唯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기술한 것이다.

42) 法苑義林章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3, 5권이다.

43) 因明入正理論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中卷, 下卷이다.

44) 般若心經幽贊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上卷이다.

45) 阿彌陀經通贊疏의 趙城藏 傳存本은 下卷이다.

46) ① 法華經玄贊의 趙城藏 傳存本은 3권(제1, 3, 4권)이다. 이들 法華經玄贊의 前존本(제1, 3, 4권)의 帙號는 ‘熟(666)’으로 기재되어 있다.

18) 瑜伽師地論義演가 賞(670)~史(677)에 수록되어 있다. 瑜伽師地論義演은 총 40卷⁴⁸⁾으로서 唐 淸素의 撰述이다. 瑜伽師地論義演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1, 4, 6, 7, 8, 11, 12, 15, 17, 19, 20, 22, 26, 28~35, 38, 40권이다.

19) 瑜伽師地論記가 魚(678)~庶(681)帙에 수록되어 있다. 瑜伽師地論記는 총 20卷으로서 新羅 道倫의 撰述이다(趙城藏 瑜伽師地論記의 著者事項에는 “海東興輪寺沙門道倫集撰”으로 기재되어 있다). 瑜伽師地論記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1, 2, 5, 6, 7, 9, 10, 11, 12, 16, 17, 19, 20권 등 13권이다.

趙城藏에 수록되어 있는 瑜伽師地論記에 대해서 中村菊之進은 趙城藏本 瑜伽師地論記 제1권 卷末에 있는 宣和 4년(1122)에 작성된 刊行 序文에 의거하여, 趙城藏本 瑜伽師地論記가 河北 眞定 지방에서 간행된 私版의 覆刻本이거나 이 私版에서 인쇄된 관본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 瑜伽師地論記가 원래 開寶藏의 續刊에 편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⁴⁹⁾ 그러나 開寶藏의 續刊 가운데 天台宗 著述은 杭州 지역에서 판각된 印版이 개보장에 그대로 편입된 것으로 볼 때⁵⁰⁾, 瑜伽師地論記 역시 私版이 그대로 개보장 속간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0) 萬善同歸集이 幾(682)帙에 수록되어 있다. 萬善同歸集은 총 3卷으로서 北宋 延壽(904~975)의 撰述로서 禪家의 心要를 기술한 것이다. 萬善同歸集의

② “金藏雕印始末考”에는 法華經玄贊이 熟(666), 貢(667) 2帙에 수록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蔣唯心, “金藏雕印始末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269). 한편 『至元錄』에도 法華經玄贊 10권이 2帙에 수록되어 있다(『중화대장경』 56책, 112).

③ 참고로 조성장본 觀自在菩薩如意論念誦儀軌와 瑜珈蓮華部念誦法은 帙號에 있어서 板首의 帙號는 ‘策’(521)으로 되어 있는데, 卷首의 帙號가 ‘貢’(667)으로 되어 있다. 觀自在菩薩如意論念誦儀軌의 경우 卷首의 帙號 ‘貢’은 네모난 중이에 ‘貢’이 필사되어 권수의 길호 위치에 붙여지고, 瑜珈蓮華部念誦法의 경우 卷首의 帙號 ‘貢’은 개筆되어 번조된 것이다.

47) 瑜伽師地論略纂의 趙城藏 傳存本은 제1, 3, 5, 6, 8~13, 15권이다.

48) 澄淨이 撰述한 科 1권(현존본은 없음)을 더하면 총 41권이 된다.

49)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43.

50) 景祐新修法寶錄 제17권: “(天聖) 四年(1026) … 內出天台智者科教經論一百五十卷, 令三藏惟淨集左右街僧職, 京城義學, 文學沙門二十人, 同加詳定, 編衆大藏. 詔杭州搜訪印版, 并令附驛以進. 有闕者, 付印經刊錄.” 참조.

趙城藏 傳存本은 中卷이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趙城藏에 수록된 開寶藏 續刊 章疏와 集傳類 경전에 대해서 개별 경전의 천자문 질호, 경전명, 권수, 행관 그리고 소재처를 기재하고, 천자문 질호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의 <표 1> “趙城藏에 수록된 開寶藏 續刊 章疏와 集傳類 경전”과 같다.

<표 1> 趙城藏에 수록된 開寶藏 續刊 章疏와 集傳類 경전

	趙城藏의 帙號	經典名	卷數	行款	中華藏 ⁵¹⁾
1	振(511)~世(513)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玄逸撰	30	23行	65冊
2	世(513)	續開元錄 圓照撰	3	23行	65冊
3	踐(581)~刑(592)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志寧撰	120	5摺 30行 17字	70冊
4	起(593)~威(602)	法苑珠林 道世撰	100	23行 14字	71冊
5	沙(603)~漠(604)	傳燈玉英集 惟淨, 法護等撰	15	方冊本 22行 17字	72冊
6	馳(605)	天竺字源 王隨撰	7	18行 26字	72冊
7	譽(606)	天聖釋教總錄	3	方冊本 16行 字數不定	72冊
8	丹(607)~青(608)	圓覺道場修證儀 宗密撰	18	20行 17字	73冊
9	九(609)~禹(611)	天聖廣燈錄 李遵勛撰	31	23行 18字	73冊
10	跡(612)~群(614)	祥符錄	22	23行 14字	73冊
11		景祐錄	21	15行 14字	73冊
12	秦(615)	曹溪寶林傳 智(或 慧)炬撰	10	23行 14字	73冊
13	禪(621)~云(623)	景德傳燈錄 道原撰	30	21行 18字	74冊
41帙 13種 410卷					
14	鷄(629)~洞(639)	澄觀撰著類			
		華嚴經清涼疏	40	26行 20字	中國 國家圖書館
		華嚴經清涼疏科	20	行款不定	日本 靜嘉堂文庫
		華嚴經隨疏演義鈔	60	26行 20字	中國 國家圖書館
11帙 3種 120卷					

51)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1984).

	趙城藏斗 帙號	經典名	卷數	行款	中華藏 ⁵¹⁾
15	庭(640)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 道氤撰	6	29行 20字	92冊
1帙 1種 6卷					
16	岵(646)~畝(660)	天台章疏類			
	岵(646)	法華經玄義 智者說	10	30行 20字	93冊
	查(647)	法華經玄義釋籤 湛然述	10	26行 22字	93冊
	冥(648)	法華經文句 智者說	10	26行 20字	94冊
	治(649)	法華經文句記 湛然述	10	26行 25字	94冊
	本(650)	摩訶止觀 智者說	10	26行 20字	94冊
	於(651), 農(652)	止觀輔行傳弘決 湛然述	15	26行 24字	95冊
	務(653), 玆(654)	涅槃經疏 灌頂撰 湛然再治	18	26行 20字	96冊
	玆(654)	涅槃經玄義 灌頂撰	2	上同	96冊
	稼(655)	金光明經文句 智者說	3	25行 17字	96冊
		金光明經玄義 智者說	1	25行 17字	96冊
		觀音經玄義 智者說 灌頂記	2	27行 26字	96冊
		觀無量壽佛經疏 智者說: 全缺	1	?	
	穰(656)	四教義 智者說	4	27行 26字	97冊
		四念處 智者說	4	上同	97冊
		觀心論疏 智者說 灌頂述	3	上同	97冊
		菩薩戒義疏 智者說	2	上同	97冊
		止觀大意 湛然述	1	上同	97冊
		觀心論 智者說	1	上同	97冊
		金剛錮 湛然述	1	25行 19字	97冊
	俶(657)	國清道場百錄 灌頂撰	5	?	中國 國家圖書館
		法界次第初門 智者說	3	1摺 5行 17字	97冊
		止觀義例 湛然述	1	26行 20字	97冊
		方等三昧行法 遵式述 - 全缺	1	?	
	載(658)	釋禪度次第法門 智者說 法慎記 灌頂再治	10	27行 26字	97冊
	南(659)	維摩經疏 智者說 湛然略	10	26行 20字	98冊
	畝(660)	維摩經疏記 湛然述	6	3摺 27行 26字	98冊
		觀世音經疏 智者說 灌頂記	2	27行 26字	98冊
		法華三昧儀 湛然述	1	26行 20字	98冊
		六妙門禪法 智者略	1	上同	98冊
15帙 29種 148卷					

開寶藏에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

	趙城藏의 帙號	經典名	卷數	行款	中華藏 ⁵¹⁾
17	我(661)~勸(669)	法相論疏類			
	我(661), 藝(662)	成唯識論述記 基述	10	25行 25字	99冊
		成唯識論述記科文 2卷	2	27행	99冊
	黍(663)	成唯識樞要 基述	3	28行 23字	99冊
		上生兜率天經疏 基述	2	29行 20字	99冊
		因明正理論過類疏 基述	1	27行 17字	99冊
		百法明門論決頌 基述: 全缺	1	?	
	稷(664)	大乘瑜伽劫章頌 基述: 全缺	1	?	
		法苑義林 基述	6	30行 20字	100冊
	稅(665)	百法論疏 義忠撰: 全缺	2	?	
		因明入正理論疏 基述	3	30行 17字	100冊
		般若心經幽贊疏 基述	2	31行 21字	100冊
		阿彌陀經通贊疏 基述	2	25行 20字	100冊
		異部宗輪論疏 基述: 全缺	1	?	
	熟(666), 貢(667)	彌勒下生成佛經疏 基述: 全缺	1	?	
		法華經玄贊 基撰	10	32行 21字	100冊
	新(668), 勸(669)	瑜伽師地論略纂 基撰	16	30行 24字	101冊
9帙 16種 63卷					
18	賞(670)~史(677)	瑜伽師地論義演 40권 淸素述,	40	27行 20字	101冊
19	魚(678)~庶(681)	瑜伽師地論記 新羅 道倫撰	20	30行 26字	102冊
20	幾(682)	萬善同歸集 北宋 延壽撰	3	37行 23字	106冊
13帙 3種 63卷					
趙城藏 90帙 65種 810卷					

3. 開寶藏의 構成과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

지금부터는 먼저 개보장의 구성에 대해서 趙城藏과 개별 경전의 入藏·刊行 기록에 의거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開寶藏에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개보장의 입장·刊行 기록 및 조성장에 의거하면, 개보장은 다음과 같이 刊行·入藏 시기에 따라 1) “本藏,” 2) “續刊 A,” 3) “續刊 B,” 4) “續刊 C”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그 밖의 사정에 따라 5) “開寶藏

續刊 Z,” 6) “開寶藏 未詳 ①,” 7) “開寶藏 未詳 ②” 등으로 파악된다.

1) “本藏”은 971年~983년에 刊行·入藏된 것인데, 經·律·論·賢聖集傳으로 구성된 開元錄의 入藏錄에 의거하여 編次된 寫本 大藏經을 저본으로 해서 雕造된 “開元錄藏經典”으로서 총 480帙이다.

2) “續刊 A”는 983年~998年頃に 간행·입장된 것인데, “宋新譯經 A” 30질⁵²⁾, “續開元錄藏經典” 27질⁵³⁾, “太宗御製” 6질⁵⁴⁾, “章疏·集傳類 ①”⁵⁵⁾ 10질⁵⁶⁾, “章疏·集傳類 ②”⁵⁷⁾ 4질⁵⁸⁾ 등 총 77帙의 경전⁵⁹⁾과 “章疏·集傳類 ③”⁶⁰⁾ 3종

52) “宋新譯經 A” 30질은 太平興國 7년(982) 23일부터 咸平 2년(999) 11월 23일까지 18년 동안 譯經院(傳法院)에서 漢譯된 287卷의 新譯經(“宋新譯經 A”)으로서 祥符錄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新譯經은 崇寧 4년(1106) 惟白에 의해서 이른바 “經傳 30帙”로 지칭된 것이다.

53) “續開元錄藏經典” 27질은 廣品歷章·續開元錄 3질, 貞元錄經 20질, 新譯華嚴經 4질 등이다. 이 가운데 貞元錄經 20질은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1帙과 開元錄 이후 玄宗, 肅宗, 太宗, 德宗 등 4朝에서 漢譯된 경전 19帙이다. 그리고 新譯華嚴經은 貞元錄에 처음 入藏된 경전이다. 이 27질의 경전들은 이른바 “未入藏 27帙”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續開元錄藏經典” 27질 가운데 廣品歷章·續開元錄 3질은 正藏이 아닌 續藏에 해당되는 章疏·集傳類의 경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廣品歷章·續開元錄 3질을 續開元錄藏에 포함되어 있는 “章疏·集傳類 ⑤”로 지칭하고자 한다.

54) 宋 “太宗御製” 6질은 御製蓮華心輪廻文偈頌 25卷(合11卷), 御製秘藏詮 30卷, 御製逍遙詠 11卷, 御製緣識 5卷 등이다. 이들 御製는 祥符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祥符錄 卷18)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은 太平興國 8년(983)에 완성되어 同年 3월에 20인이 註解를 한 다음 編聯入藏된 것이고, 御製秘藏詮 30卷 가운데 秘藏詮 20卷, 秘藏詮佛賦[御製佛賦]·歌行[詮源歌] 1卷은 端拱 원년(988) 12월에 56인이 註解를 한 다음 編聯入藏되었으며, 또 御製秘藏詮 30卷 가운데 秘藏詮幽隱律詩 4卷·秘藏詮懷感詩 4卷·秘藏詮懷感廻文詩 1卷 그리고 逍遙詠 11卷은 端拱 2년(989) 11월에 12인이 註釋을 한 다음 編聯入藏되었고, 緣識 5卷은 至道 원년(995) 3월에 印經院에서 開板 模印되어 編聯入藏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咸平 初年(998~?)에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編入된 것이다.

55) “章疏·集傳類 ①”은 해당 경전이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56) 이 “章疏·集傳類” 10질은 法苑珠林 10질이다.

57) “章疏·集傳類 ②”는 해당 경전이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고, 재조장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58) 이 “章疏·集傳類” 4질은 曹溪寶林傳 1질, 景德傳燈錄 3질이다.

59) “長安終南太一山豐德開利寺 譯經沙門雲勝遊禮行借忘第一第十二▲ 咸平元年上表 乞續編入開元年智昇撰錄後來唐玄肅代德四朝七人三藏所翻 并聖朝四人翻譯 并聖製三藏集傳一千餘卷 今取聖▲集補之 ▲第十”(“寶林傳”卷第二 末尾{中華書局編, 『中華大藏

34권의 경전⁶¹⁾이다.

3) “續刊 B”는 1011年~1079년에 간행·입장된 것인데, “宋新譯經 B” 43집⁶²⁾, “章疏·集傳類 ②” 45집⁶³⁾ 등 총 88帙의 경전과 “章疏·集傳類 ③” 8종 46권의 경전⁶⁴⁾이다.

經』(1984), 73책, 617}.

60) “章疏·集傳類 ③”은 해당 경전이 刊行·入藏 기록은 있으나,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전을 의미한다.

61) 이 “章疏·集傳類 ③” 3종 34권의 경전은 祥符錄에 수록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贊寧撰, 宋高僧傳 30卷[端拱 元年(988), 祥符錄 卷20]

省才撰, 新譯大方廣恆持寶光明經疏[端拱 2年(989), 祥符錄 卷7]

贊寧撰, 僧史略 3卷[大中祥符 4年(1011), 祥符錄 卷20]

62) “宋新譯經 B” 43집은 咸平 2년(999) 11월 이후 大中祥符 4년(1011)까지의 新譯經 5집(祥符錄에 수록되어 있음), 大中祥符 5년(1011) 5월 이후 天聖 5년(1027) 3월까지의 新譯經 11집(天聖錄, 景祐錄에 수록되어 있음), 天聖 5년(1027) 3월 이후 景祐 3년(1036)까지의 新譯經 6집(景祐錄에 수록되어 있음), 景祐 3년(1036) 이후 元豐 2년(1079)까지의 新譯經 11집{中村菊之進은 출처는 미상인데, 元豐傳法院新編法寶錄(지금은 失傳되었지만 景祐錄 이후의 譯經을 수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經錄입)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40)} 등이다.

63) 이 “章疏·集傳類 ②” 45집은 澄觀撰著類 11집, 天台章疏類 15집, 法相論疏類 9집, 傳燈玉英集 2집, 天竺字源 1집, 天聖釋教總錄 1집, 天聖廣燈錄 3집, 祥符錄·景祐錄 3집 등이다. 이 가운데 傳燈玉英集 2집은 景祐 2년(1035) 9월에 勅版된 것이고(佛光大辭典, 1351), 天竺字源 1집은 景祐 원년(1034)에 편성되어 同年에 印經院에서 開版된 것이며(佛光大辭典, 5393), 天聖釋教總錄 1집은 天聖 5년(1027)에 惟淨이 편찬하여 진상한 것이고, 天聖廣燈錄 3집은 天聖 7년(1029)에 李遵勗이 仁宗에게 진상한 것이며(佛光大辭典, 1363), 祥符錄은 北宋의 趙安仁, 楊億, 惟淨 등이 大中祥符 6년(1013)에 편찬한 것이고, 景祐錄은 北宋의 呂夷簡 등이 景祐 4년(1037)에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天台章疏類 15집과 法相論疏類 9집은 宋 仁宗 天聖 4년(1026)에 勅命으로 “編聯入藏”된 것이다(天聖四年夏四月 內出天台智者科教經論一百五十卷 令三藏惟淨集左右街僧職京城義學文學沙門二十人 同加詳定編錄入藏(景祐錄 卷17) 및 天聖四年五月 復出唐慈恩寺翻經法師窺基所著經論章疏四十三卷 令編連入藏(景祐錄 卷17)). 한편 澄觀撰著類에 해당되는 경전인 華嚴經清涼疏科의 開寶藏覆刻本으로서 嘉泰元年(1201) 진후에 간행된 華嚴經清涼疏科 제4권 卷末에는 熙寧辛亥歲(1071)의 開寶藏 印經牌記가 새겨져 있다. 이로 보아 開寶藏本 華嚴經清涼疏科는 1071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華嚴經清涼疏科를 비롯한 澄觀撰著類 11집(華嚴經清涼疏 40권, 華嚴經清涼疏科 20권, 華嚴經隨疏演義鈔 60권)은 天台章疏類와 法相宗論疏類가 天聖 4년(1026)에 勅命으로 編聯入藏될 즈음에 開寶藏 續刊으로서 간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

64) 이 “章疏·集傳類 ③” 8종 46권의 “경전”은 祥符錄 및 景祐錄에 수록된 것으로서 다음과

4) “續刊 C”는 1094年~1122년에 간행·입장된 것인데, “宋新譯經 C” 4질⁶⁵⁾, “章疏·集傳類 ②” 16질⁶⁶⁾ 등 총 20帙의 경전과 “章疏·集傳類 ③” 2종 38권의 경전⁶⁷⁾이다.

5) “開寶藏 續刊 Z”는 해당 경전이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어 개보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入藏·刊行 記錄未詳 경전이다. “章疏·集傳類 ④” 12帙(5종 67권)⁶⁸⁾이 여기에 해당한다.

6) “開寶藏 未詳 ①”에 해당되는 경전은 총 다섯 질에 해당되는 경전이다. 이것은 조성장에 결실된 曠(641)帙부터 嚴(645)帙까지의 5질의 경전에 의거하여 추정된 것인데, 조성장에서 결실되어 未詳인 이 5질의 경전도 다른 조성장의 경전과 같이 개보장에 입장되었던 경전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7) “開寶藏 未詳 ②”에 해당되는 경전은 총 일곱 질에 해당되는 경전이다.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앞장에 제시된 <표 1> “趙城藏에 수록된 開寶藏 續刊 章疏와 集傳類 경전”과 至元錄⁶⁹⁾을 참고하게 되면, 法華經玄贊 10권이 두 질에 수록되어 있고,

같다.

清達注, 箋注御製聖教序[大中祥符 6年(1013), 祥符錄 卷20]

太宗御製, 妙覺集 5卷[大中祥符 8年(1015), 祥符錄 卷18]

箋注御製聖教序, 注四十二章經·遺教經·百緣經序[天禧 3年(1019), 景祐錄 卷13]

秘演等注, 箋注御製述釋典文章 31卷[天禧 5年(1021), 景祐錄 卷13]

法護·惟淨注, 御製三寶讚注 3卷·莊獻明肅皇太后發願文注 3卷[天聖 8年(1030), 景祐錄 卷13]

65) “宋新譯經 C” 4질은 紹聖~政和年間(1094~1117)에 新譯된 경전이다. 예를 들어 大乘智印經은 紹聖二年(1095) 正月에 雕造되었고(趙城藏 雁함에 수록되어 있는 宋代 智吉祥·金總持가 漢譯한 大乘智印經 卷第5의 末尾에는 “紹聖二年 正月 日顯聖寺印經院奉聖旨雕造”라는 原刊記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法大乘義決定經은 政和年間(1111~1117)에 漢譯된 것이다(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叢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204).

66) 이 “章疏·集傳類 ②” 16질은 瑜伽師地論記 4질과 華嚴經合論 12질이다.

67) 이 “章疏·集傳類 ③” 2종 38권의 경전”은 다음과 같다.

惟白撰, 建中靖國續燈錄 30卷[建中靖國 元年(1101), 續燈錄序]

惟白撰, 大藏綱目指要錄 8卷[崇寧 4年(1105), 指要錄序]

68) 入藏·刊行 記錄未詳 경전인 “章疏·集傳類 ④” 12帙은 圓覺道場修證儀 18권 2질,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 6권 1질, 瑜伽師地論義演 40권 8질, 萬善同歸集 3권 1질 등이다.

69)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56책(1984), 112.

瑜伽師地論義演 40권이 여덟 질에 수록되어 있으며, 瑜伽師地論記 20권이 네 질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⁷⁰⁾ 일반적으로 대장경에는 한 질에 열 권 정도의 경전이 수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조성장과 至元錄에 수록되어 있는 法華經玄贊 10권(2질), 瑜伽師地論義演 40권(8질), 瑜伽師地論記 20권(4질)에 해당되는 帙의 분량은 매우 불합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法華經玄贊 10권(2질)이 수록되어 있는 帙次에는 한 질의 경전이, 瑜伽師地論義演 40권(8질)이 수록되어 있는 帙次에는 네 질의 경전이, 瑜伽師地論記 20권(4질)이 수록되어 있는 帙次에는 두 질의 경전 등 총 일곱 질의 경전이 더 수록되어 있어야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일곱 질의 경전은 원래 개보장에 입장된 경전인데 유실되어 조성장에는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개보장의 전체적인 구성과 규모 그리고 개보장에 속간으로서 追加 入藏된 章疏·集傳類 경전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첫째, 일차적으로 開寶藏은 1) “本藏”(480질), 2) “續刊 A”(77질 및 “章疏·集傳類 ③”(3종 34권)), 3) “續刊 B”(88질 및 “章疏·集傳類 ③”(8종 46권)), 4) “續刊 C”(20질 및 “章疏·集傳類 ③”(2종 38권)), 5) “開寶藏 續刊 Z”(12질), 6) “開寶藏 未詳 ①”(5질)⁷¹⁾, 7) “開寶藏 未詳 ②”(7질) 등으로서 총 689질과 趙城藏에 미수록된 경전(“章疏·集傳類 ③”의 13종 118권[12질]⁷²⁾을 포함하여 총 701질

70) 이들 경전은 조성장의 熟(666), 貢(667), 賞(670)~史(677), 魚(678)~庶(681)帙에 수록되어 있다.

71) 이 “開寶藏 未詳”(5질)경전은 조성장에서 결실된 曠(641)帙부터 嚴(645)帙까지의 5질의 경전이다.

72) 이 “12질”은 “118권”을 帙數로 환산한 것이다. 이 12질의 경전은 “章疏·集傳類 ③”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성장에 미수록된 경전이다. 이들 경전은 “續刊 A”의 “章疏·集傳類 ③” 3종 34권의 경전, “續刊 B”의 “章疏·集傳類 ③” 8종 46권의 경전, “續刊 C”의 “章疏·集傳類 ③” 2종 38권의 경전 등으로서 開寶藏으로서의 入藏·刊行 기록이 분명하지만 조성장과 고려장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전이다. 이들 경전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贊寧撰, 宋高僧傳 30卷[端拱 元年(988), 祥符錄 卷20]

省才撰, 新譯大方廣恒持寶光明經疏[端拱 2年(989), 祥符錄 卷7]

贊寧撰, 僧史略 3卷[大中祥符 4年(1011), 祥符錄 卷20]

清達注, 箋注御製聖教序[大中祥符 6年(1013), 祥符錄 卷20]

로 구성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한편, 일차적으로 추산된 개보장의 701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성장에는 5질의 경전이 결실되어 있는 상황인데(즉 6) “開寶藏 未詳 ①”(5질)⁷³⁾, 이 결실된 5질의 경전이 趙城藏에 미수록된 경전 12帙(즉 “章疏·集傳類 ③”의 13종 118권[12질]⁷⁴⁾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趙城藏에 미수록된 경전 12帙 가운데 5질이 조성장의 결실된 5질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개보장은 701질에서 5질을 뺀 696질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조성장에 미수록된 경전(즉 “章疏·集傳類 ③”의 13종 118권[12질])은 12질이 아닌 7질로 판단된다. 또한,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전으로 7질(즉 7) “開寶藏 未詳 ②”(7질)이 파악되었는데, 조성장에 미수록된 경전 12질 가운데 7질(“章疏·集傳類 ③”의 13종 118권[12질]에서 5질이 제외된 7질임)이 바로 이 7질(즉 7) “開寶藏 未詳 ②”(7질)의 경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거하여, 조성장에 미수록된 경전 12질 가운데 7질(“章疏·集傳類 ③”의 13종 118권[12질]에서 5질이 제외된 7질임)이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전 7질(즉 7) “開寶藏 未詳 ②”(7질)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개보장은 696질에서 7질을 뺀 689질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전 7질(즉 7) “開寶藏 未詳 ②”(7질)은 그 해당 경전의 經名은 알 수 없지만, 이 7질은 이미 조성장의 熟(666), 貢(667), 賞(670)~史

太宗御製, 妙覺集 5卷[大中祥符 8年(1015), 祥符錄 卷18]

眞宗御注序, 注四十二章經·注遺教經·百緣經序[天禧 3年(1019), 景祐錄 卷13]

秘演等注, 箋注御製述釋典文章 31卷[天禧 5年(1021), 景祐錄 卷13]

法護·惟淨注, 御製三寶讚注 3卷·莊獻明肅皇太后發願文注 3卷[天聖 8年(1030), 景祐錄 卷13]

惟白撰, 建中靖國續燈錄 30卷[建中靖國 元年(1101), 續燈錄序]

惟白撰, 大藏綱目指要錄 8卷[崇寧 4年(1105), 指要錄序]

73) 각주 71) 참조.

74) 각주 72) 참조.

(677), 魚(678)~庶(681)帙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보장의 帙數는 689질에서 중복된 7질을 제외하면 682질이 된다. 결과적으로 개보장은 조성장과 동일하게 총 682질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둘째, 개보장의 續刊으로서 追加 入藏된 章疏·集傳類 경전은 총 102帙(78種 928卷)⁷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종류로 분석된다. 하나, 해당 경전이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章疏·集傳類 ①” 10질(1종 100권), 둘, 해당 경전이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고, 재조장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章疏·集傳類 ②” 65질(58종 610권), 셋, 해당 경전이 刊行·入藏 기록은 있으나,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은 “章疏·集傳類 ③”(13종 118권), 넷,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어 개보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入藏·刊行 記錄未詳인 “章疏·集傳類 ④”(12질 4종 67권), 다섯, 續開元錄藏에 포함되어 있는 “章疏·集傳類 ⑤”(3질 2종 33권)⁷⁶⁾ 등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開寶藏의 構成(案)”과 같다. 본 표에서는 해당 경전의 조성장과 재조장의 帙(函)號 및 수록 여부를 병기하여 참고가 되게 하였다.

75) “102질”은 원래 개보장의 續刊으로서 조성장에 수록된 章疏·集傳類 경전 90질(후술할 “章疏·集傳類 ①” 10질, “章疏·集傳類 ②” 65질, “章疏·集傳類 ④” 12질, “章疏·集傳類 ⑤” 3질)과 조성장에 미수록된 “章疏·集傳類 ③” 118권(질수로 환산하면 12질임)을 합한 것이다. 그리고 “78種 928卷”은 조성장에 수록된 경전인 65종 810권(“章疏·集傳類 ①” 1종 100권, “章疏·集傳類 ②” 58종 610권, “章疏·集傳類 ④” 4종 67권, “章疏·集傳類 ⑤” 2종 33권)에다 조성장에 미수록된 경전인 “章疏·集傳類 ③” 13종 118권을 합한 것이다.

한편, 개보장의 續刊으로서 追加 入藏된 章疏·集傳類 경전의 수량인 총 102帙 78種 928卷에다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서 “開寶藏 未詳 ②”에 해당되는 경전 7질까지 포함시킨다면, 개보장의 續刊으로서 실제 追加 入藏된 章疏·集傳類 경전은 총 109帙 78(+?)種 928(+?)卷인 것으로 추측된다.

76) “章疏·集傳類 ⑤”(3질 2종 33권)는 조성장의 振(511)~世(513)질 수록되어 있는 廣品歷章 30권과 續開元錄 3권이다.

<표 2> 開寶藏의 構成(案)⁷⁷⁾

區分	入藏(刊行) 時期	內容		帙數	趙城藏 帙號	再雕藏 帙號
1	開寶藏 本藏 971年 ~ 983年	開元錄藏 經典	開元錄經	480帙	天(1)~ 英(480)	天(1)~ 英(480)
2	開寶藏 續刊 A 983年 ~ 998年頃	宋新譯經 A	宋新譯經	30帙	杜(481)~ 毅(510)	杜(481)~ 毅(510)
		章疏·集傳類 ⑤	廣品歷章, 續開元錄 2種 3帙	27帙	振(511)~ 世(513)	振(511)~ 修(515)
		續開元錄藏 經典 ⁷⁸⁾	貞元錄經 20帙		祿(514)~ 磻(529), 時(534)~ 奄(537)	磻(529)~ 合(548)
		(貞元錄入藏 經典)	新譯華嚴經 4帙		溪(530)~ 佐(533)	勒(525)~ 銘(528)
		太宗御製	御製秘藏詮 等	6帙	并(616)~ 岱(620), 亭(624)	富(516)~ 輕(520)
		章疏·集傳類 ①	法苑珠林	10帙	起(593)~ 威(602)	霸(572)~ 何(585)
		章疏·集傳類 ②	曹溪寶林傳	1帙	秦(615)	未收錄
		章疏·集傳類 ②	景德傳燈錄	3帙	禪(621)~ 云(623)	未收錄
		章疏·集傳類 ③	宋高僧傳	30卷	未收錄	未收錄
	新譯大方廣愍持寶光明經疏	1卷	未收錄	未收錄		
	僧史略	3卷	未收錄	未收錄		

77) 본 표의 작성에는 蔣唯心の “金藏雕印始末考”(『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266)와 中村菊之進의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密教文化』 145(1984), 41)를 참고하였다.

78) ① 高麗藏에는 續開元錄藏이 아닌 續貞元錄藏 經典이 收錄되어 있다. 그리고 廣品歷章 대신에 隨函錄이 수록되어 있다. ② 教藏總錄에는 “詮曉集(舊名詮明) 續開元釋教錄三卷”이 수록되어 있다.

79) ‘章疏·集傳類 ③’은 趙城藏이나 高麗藏에도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 開寶藏 續刊으로 간행되어 入藏 記錄이 있는 경전이다. 총 118卷[12帙]이다.

80) 이 5帙(曠(641)~嚴(645))의 “開寶藏未詳 ①”은 趙城藏에서 缺失되어 그 경전의 내용이 未詳인 상태이다.

81) 이 7질의 “開寶藏未詳 ②”는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전 7질로서 그 해당 경전의 내용(經名, 종수, 권수)은 알 수 없다. 이 7질은 조성장의 熟(666), 貢(667), 賞(670)~史(677), 魚(678)~庶(681)帙에 수록되어 있는 경전의 수량에 의거하여 추측된 것이다(제3장의 제7항 “開寶藏 未詳 ②” 참조).

開寶藏에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

區分	入藏(刊行)時期	內容	帙數	趙城藏帙號	再雕藏帙號	
3	開寶藏續刊 B 1011年 ~ 1079年	宋新譯經 B	宋新譯經	43帙	宅(538)~ 號(580)	遵(586)~ 塞(628)
		章疏·集傳類 ②	澄觀撰著類	3種 11帙	鷄(629)~ 洞(639)	未收錄
			天台章疏類	29種 15帙	崑(646)~ 畝(660)	未收錄
			法相論疏類	16種9 帙	我(661)~ 勸(669)	未收錄
			傳燈玉英集	2帙	沙(603)~ 漠(604)	未收錄
			天竺字源	1帙	馳(605)	未收錄
			天聖釋教總錄	1帙	譽(606)	未收錄
			天聖廣燈錄	3帙	九(609)~ 馮(611)	未收錄
			祥符錄, 景祐錄	2種 3帙	跡(612)~ 群(614)	未收錄
		章疏·集傳類 ③	箋注御製聖教序	1卷	未收錄	未收錄
			妙覺集	5卷		
			注四十二章經, 注遺教經, 百緣經序	3種 3卷		
			箋注御製述釋典文章	31卷		
			御製三寶讚注	3卷		
	莊獻明肅皇太后發願文注	3卷				
4	開寶藏續刊 C 1094年 ~ 1122年	宋新譯經 C	宋新譯經	4帙	鴈(625)~ 塞(628)	未收錄
		章疏·集傳類 ②	瑜伽師地論記	4帙	魚(678)~ 庶(681)	未收錄
			華嚴經合論	12帙	踐(581)~ 刑(592)	未收錄
		章疏·集傳類 ③	建中靖國續燈錄	30卷	未收錄	未收錄
			大藏綱目指要錄	8卷	未收錄	未收錄
5	開寶藏續刊 Z 未詳	章疏·集傳類 ④	圓覺道場修證儀	2帙	丹(607)~ 青(608)	未收錄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	1帙	庭(640)	未收錄
			瑜伽師地論義演	8帙	賞(670)~ 史(677)	未收錄
			萬善同歸集	1帙	幾(682)	未收錄
6	開寶藏未詳 ①	未詳 ⁸⁰⁾		5帙 (全缺)	曠(641)~ 嚴(645)	
7	開寶藏未詳 ②	未詳 ⁸¹⁾		7帙	未收錄	

參考事項: 開寶藏 682帙, 趙城藏 682帙, 再雕藏 639帙, 契丹藏 579帙

4. 結 言

본 연구는 趙城藏에 수록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을 분석하고, 開寶藏의 구성과 개보장에 追加 入藏된 章疏와 集傳類 경전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보장은 일차적으로 開寶藏은 1) “本藏”(480질), 2) “續刊 A”{77질 및 “章疏·集傳類 ③”(3종 34권)}, 3) “續刊 B”(88질 및 “章疏·集傳類 ③”(8종 46권)}, 4) “續刊 C”{20질 및 “章疏·集傳類 ③”(2종 38권)}, 5) “開寶藏 續刊 Z”(12질), 6) “開寶藏 未詳 ①”(5질), 7) “開寶藏 未詳 ②”(7질) 등으로서 총 689질과 趙城藏에 미수록된 경전{“章疏·集傳類 ③”의 13종 118권[12질]}을 포함하여 총 701질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재검토한 결과 조성장에 결실되어 있는 5질{6) “開寶藏 未詳 ①”(5질)}과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7질{즉 7) “開寶藏 未詳 ②”(7질)}이 趙城藏에 미수록된 12질{“章疏·集傳類 ③”의 13종 118권[12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래 개보장에 入藏되었던 경전인데 조성장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7질{즉 7) “開寶藏 未詳 ②”(7질)}은 이미 조성장의 熟(666), 貢(667), 賞(670)~史(677), 魚(678)~庶(681)帙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보장의 실제적인 帙數는 일차적으로 추정된 701질에서 중복·포함된 19질을 제외한 682질로 추산되었다. 궁극적으로 개보장은 조성장과 동일하게 총 682질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개보장의 續刊으로서 追加 入藏된 章疏·集傳類 경전은 총 102帙(78種 928卷)⁸²⁾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종류로 분석되었다. 하나, 해당 경전이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章疏·集傳類 ①” 10질(1종 100권), 둘, 해당 경전이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고 재조장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章疏·集傳類 ②” 65질(58종 610권), 셋, 해당 경전이 刊行·入藏 기록은 있으나 조성장과 재조장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은 “章疏·集

82) 각주 75) 참조.

傳類 ③” 12질(13종 118권), 넷,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어 개보장인 것은 분명하지
만 入藏·刊行 記錄未詳인 “章疏·集傳類 ④” 12질(4종 67권), 다섯, 續開元錄
藏에 포함되어 있는 “章疏·集傳類 ⑤” 3질(2종 33권) 등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문헌>

-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 유부현.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 시간의 물레, 2014.
-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韓國圖書館情報學會誌』
제32권 제3호(2001).
- 柳富鉉. “高麗再雕大藏經과 開寶勅版大藏經의 比較 研究.” 『佛教學研究』 16호
(2007).
-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研究』 33집(2006).
- 柳富鉉. “中國國家圖書館에 所藏된 『開寶藏』殘本 研究.” 『書誌學研究』 24집
(2002).
- 李富華. “『趙城金藏』 研究.” 『中日佛教學術會議論文集』. 社會科學院出版社, 1997.
- 蔣唯心. “金藏雕印始末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